

대격 조사 생략의 화용적 분석*

이 성 범
(서강대학교)

Lee, Sunghom. 2006. A Pragmatic Analysis of Accusative Case-Marker Deletion. *Discourse and Cognition* 13.3, 69-89.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plore the deletion of accusative Case-markers in Korean from the perspective of neo-Gricean pragmatics. A variety of analyses have been made as to the deletion of accusative Case markers. For example, Enç (199) provided a semantic account of accusative Case-marking in Turkish, using the notion of specificity. In a similar vein, D. Kim (1993) proposed an analysis of accusative Case deletion in Korean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specificity and nonspecificity. Other approaches include D. Lee (2002) on Case-marking in spoken Japanese discourses and the analysis of Korean accusative Case by Ko (2000), where the concept of focus plays a crucial role.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all of these analyses of accusative Case deletion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account for every aspect of the deletion, although they are valid to some extent for a restricted set of data. As a more generalized alternative, a pragmatic account is proposed that utilizes Levinson's principles of pragmatic inferences. Finally, the various pragmatic and metapragmatic functions that the marked forms of NPs without accusative case markers are discussed. (Sogang University)

Key Words: Case-marker deletion, accusative, neo-Gricean pragmatics, conversational principles, specificity, focus, implicature

1. 들어가기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에서 주로 직접목적어를 표시하는 대격 조사 '-을/를'의 생략에 대해 기존의 주요 분석들을 재검토하고 신그라이스적 화용론(neo-

* 본 연구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세 분의 익명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남아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나 오류는 전적으로 논문 저자의 몫임을 밝힙니다.

Gricean pragmatics)의 틀 안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¹⁾ 대격 표지의 생략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통사-의미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 중 여기서 주목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선 Enç(1991)는 터키어의 대격 표지 생략 현상을 특정성(specificity)이라는 의미론적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와 거의 동일한 관점에서 D. Kim(1993)은 한국어 대격 조사의 생략을 다룬 바 있다. 또한 D. Lee(2002)는 구어체 일본어 담화에서 영형 대격 표지의 분포를 분석하였고, Ko(2000)는 초점(focus)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어에서 대격 표지의 생략 현상에 대해 다루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비록 제한적인 범위에서는 타당하지만, 한국어의 대격 조사 생략 현상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차례대로 밝히고, 의미론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화용적으로는 기능이 다른, 선택가능한 대안 표현들 사이의 유표성의 차이로 인한 함축 때문에 대격 표지의 생략이 다양한 화용적, 상위화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특정성 분석

Enç(1991)는 터키어에서 명사의 대격을 나타내는 형태소인 -(y)i는 그 명사가 의미적으로 특정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반면, 그 명사가 특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생략된다고 주장한다.²⁾ 예를 들어

- (1) Ali bir piyano-yu kiralamak istiyor.
Ali one piano-Acc to-rent wants
'Ali wants to rent a certain piano.'
- (2) Ali bir piyano kiralamak istiyor.
Ali one piano to-rent wants
'Ali wants to rent a (nonspecific) piano.'

(1)에서는 목적어 명사인 *piyano*가 주어인 *Ali*가 대여하기 원하는 특정한 피아노를 가리키기 때문에 대격 표지인 *-yu*가 필수적으로 붙어야 하는 반면, (2)에서 목적어 명사 *piyano*는 불특정 피아노를 가리키기 때문에 대격 표지가 생

1) '대격'이란 여러 관점에서 달리 정의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대격'은 형태상 '-을/를'로 실현되는, 타동사의 직접목적어로 쓰인 명사의 격을 말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격'을 영문으로 표기할 때 일반적 관례에 따라 'Case'로 표기하기로 한다.

2) 터키어의 대격 조사는 원순성과 전설성에서 어간의 모음과 일치하는 고모음으로 실현된다. 예문 (1)에서 *piyano*의 경우는 어간말 모음이 원순 후설모음이기 때문에 대격 조사는 *-yu*로 실현된다.

략된다. Enç(1991:10)는 터키어에서 특정적 명사는 반드시 대격 표지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예문 (3)에서 *her kitab* 'every book'과 같은 특정적 명사는 대격 표지가 생략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3) Ali her kitab-i/*kitab okudu.
Ali every book-Acc/book read
'Ali read every book.'

이 예문에서 영어의 양화사 *every*에 해당하는 터키어 *her*가 한정하는 명사구는 그 의미적 속성이 반드시 특정적인데, 이런 명사구는 대격 표지 없이 쓰이면 (4)처럼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4) *Ali her kitab okudu.
Ali every book read

그런데 전통적인 분석에 의하면 명사 또는 명사구의 특정성은 양화사를 제외한, 그것과 관련이 있는 다른 표현과의 의미 영향권의 상대적 범위로 정의된다.³⁾ 예를 들어 앞에서 본 예문 (1)에서 특정적인 명사 *piyano*는 명제 태도 동사인 *istiyor* 'want'보다 넓은 영향권을 갖는 반면, (2)에서 불특정적 명사 *piyano*는 같은 명제 태도 동사보다 좁은 영향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영향권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특정성/불특정성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특정성/불특정성만이 대격 표지의 생략을 결정하고 다른 요소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대격 표지에 관한 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이분법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 (5) 우리 가족 모두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위 예문은 '강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영향권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만약 '강아지'의 영향권이 보다 넓은 경우 특정적이기 때문에 대격 표지가 실현되는 것은 전통적 분석에 일치한다. 그러나 (5)의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강아지'가 '우리 가족 모두'보다 좁은 영향권을 가져서 불특정적인 경우인데, 그렇다면 이는 대격 표지가 생략되어야 하지만 대격 표지의 실현이 가능하다.

3) 이에 대해서는 Fodor and Sag(1982)를 참조할 것.

따라서 Enç(1991, 2004)는 특정성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권 분석 대신 담화 지시대상의 특성에 따라 특정성을 정의한다. 즉 다음 예문 (6)에서 *two of them*처럼 어떤 명사구가 이미 담화 앞부분에서 다른 명사구 (즉 *three children*)에 의해 제시된 지시 대상과 자신이 지시하는 대상이 포함 관계(inclusion relation)에 있으면 특정적이 될 수 있다.⁴⁾

- (6) Three children entered the room. Two of them were wearing a hat.

이런 경우의 명사구를 부분적 특정 표현(partitive specifics)이라고 하는데, 명사구는 이처럼 앞에서 제시된 담화 대상의 일부분을 가리켜서 특정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담화 상에 아무런 지시 대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특정적일 수 있다.

- (7) There is a certain man willing to take this mission.

즉 Enç(1991, 2004)에 의하면 *a certain*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명사 표현은 비록 담화 상에 지시 대상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다른 대상들의 집합을 떠올릴 수 있으므로 특정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며 이를 관계적 특정 표현(relational specifics)이라고 한다.

그런데 영향권 대신 담화 지시 대상에 대한 관계에 의해 특정성을 정의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어의 대격 표지가 갖는 의미적 특성을 모두 포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논하기 위해 우선 대격 표지 생략에 대한 Enç의 특정성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한 D. Kim(1993:2)의 분석을 보도록 하자. Kim은 한국어에서도 터키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적 명사구는 대격 조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

- (8) ??철수는 어떤 책 읽고 있었다.
(9) 철수는 어떤 책을 읽고 있었다.

4) 만약 (6)에서 주어의 자리에 *Two of them*이 아니라 *They*가 오면 이는 앞의 *three children*과 단순 포함관계가 아니라 일치 관계(identity relation)를 이루기 때문에 특정적 명사구 보다 더 강력한 한정적 명사구가 된다.

5) D. Kim(1993)은 한국어의 경우 대격 조사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명사구가 특정적으로 해석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한다.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이 논문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한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대격 조사는 특정적 명사구에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위 예문 (8)-(9)에서 ‘어떤 책’은 Kim(1993)의 주장에 의하면 관계적 특정표현이기 때문에 (8)에서처럼 대격 표지가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 그런데 다음 예문 (10)-(11)에서는 목적어 ‘물’이 담화 지시대상이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떤’과 같은 수식어가 없어서 특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격 표지가 실현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자연스럽다.⁶⁾

- (10) 하마는 물을 좋아한다.
 (11) ??하마는 물 좋아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점은 앞에서 보았던 Enç의 예측과 정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특정적 명사구는 대격 조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Enç나 Kim의 분석에서는 오직 (12)만 문법적인 문장이어야 하고 (13)은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 (12) 내가 한 달 전에 빌려준 책을 아직도 읽고 있니?
 (13) 내가 한 달 전에 빌려준 책 아직도 읽고 있니?

그러나 (13)에서 목적어 명사구는 특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대격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이 점은 특정적 명사구는 반드시 대격 조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례가 된다. 또한 특정적이지 않은 명사구는 대격 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주장도 다음 예문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

- (14)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우선 밥을 찾는다.
 (15)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우선 밥 찾는다.

위 예문에서 동사 ‘찾는다’의 목적어인 ‘밥’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즉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밥을 말하는 불특정적인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Enç나 Kim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대격 표지가 실현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자연스럽다. 또한 앞서서도 보았듯이 특정성 분석은 대격 표지의 실현에 대해 엄격한 이분법적 예측을 내리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격 표지가 실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둘 다 가능한 경우

6) Kim(1993)은 명사 수식어 ‘어떤’은 일반적으로 특정적 명사구를 만들지만 “어떤 학생을 열 명 보았다”와 같은, 그가 말하는 Type C 문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불특정 명사구를 만들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유형적 차이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 심사위원은 (10)-(11)에서 ‘물’이 총칭적(generic)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격 표지 생략의 화용적 분석은 가능하다고 본다.

도 있다.

- (16) 작년엔 주식 산 사람들은 지금쯤 다 망했다.
 (17) 작년엔 주식을 산 사람들은 지금쯤 다 망했다.
 (18) 작년엔 이 집 산 사람은 지금쯤 돈 많이 벌었겠다.
 (19) 작년엔 이 집을 산 사람은 지금쯤 돈 많이 벌었겠다.

위 예문에서 ‘주식’은 불특정적 명사구인 반면 ‘이 집’은 특정적 명사구인데, 명사구의 특정성/불특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격 표지는 붙을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다.⁷⁾ 더 나아가 Kim(1993)의 분석에서 불특정 명사구가 대격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원래 하나의 불특정적 명사구에서 분리되어 그 중 일부가 이동한 경우인데, (20)의 경우는 그런 명사구 분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뿐만 아니라 지시 대상이 담화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적 특정 표현의 경우도 Enç나 Kim의 예측과 달리 대격 표지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 (20) 엄마: [식탁 위의 포도와 사과를 가리키며] 포도 먹을래 사과 먹을래?
 아이: 포도 먹을래요??포도를 먹을래요.

(20)의 대화에서 아이의 발화에 나온 ‘포도’는 이미 담화 상에 지시 대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격 표지가 생략된 채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격 표지에 대한 특정성/불특정성 분석은 대격 표지가 갖는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포착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자.

- (21) 미나는 이 클럽에서 춤 춘다.

7) Kim(1993)의 분석은 명사구의 불/특정성과 통사적 특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다음 예문 (가)와 같이 대격 표지가 실현되어 특정적인 명사구는 (나)와 같이 문두로 뒤쫓기 이동이 가능하지만 (다)처럼 부분 적출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 (가) 철수는 [사과 세 개를] 먹었다.
 (나) [사과 세 개를]i 철수는 ti 먹었다.
 (다) *사과i 철수는 [ti 세 개를] 먹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영철(2005)은 위 예문에서의 [사과 세 개를]이 특정적일 수도 있고 불특정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분석이 더 타당하든 이런 예문들에 대한 해석상의 선호를 설명하는 것은 화용적 분석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22) 미나는 이 클럽에서 춤을 춘다.

위의 예문을 비교해 볼 때 대격 표지가 생략된 문장은 그렇지 않은 문장에 비해 그 행위가 일회적이지 않고 보다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이어서 (21)에서는 (22)와 달리 미나가 그 클럽에서 직업적으로 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번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함축한다. 뿐만 아니라 대격 표지가 생략된 표현은 원래의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나 비유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23)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24) ??눈을 감으면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다.

(25)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은 닥치는 대로 조선인의 코를 베었다.

(26)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은 닥치는 대로 조선인의 코 베었다.

(23)에서 ‘눈’이나 ‘코’는 문자 그대로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이럴 경우 대격 표지를 실현하면 전달하려는 비유적 의미 보다는 문자적 의미가 두드러지게 된다. 반대로 (25)에서는 문자 그대로 ‘코를 베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럴 경우는 대격 표지가 실현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자연스러운데 이는 비유와 같은 별도의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격 표지는 목적어 명사구의 특성성 여부만을 전달하는 좁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화용적 함축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까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대격 표지의 특성성 이론은 이를 다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3. 초점 분석

한국어의 대격 표지 생략과 관련해서 초점(focus)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E. Ko(2000)라고 할 수 있다. Ko(2000)는 대격 조사의 생략은 초점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즉 다음 예문 (27)에서처럼 어떤 목적어 명사구가 초점을 받으면 대격 표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대격 표지가 생략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⁸⁾

8) 초점에는 아래 예문 (a)에서 볼 수 있는 대조적 초점(contrastive focus)과 예문 (b)에서 볼 수 있는 완성적 초점(completive focus)이 있다.

(a) A: Do you want coffee or tea? - B: I want [coffee].

(b) A: Who wants tea? - B: [Mary] wants tea.

이 중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조적 초점으로서 이 글에서 ‘초점’이란 ‘대조적 초점’을 의미한다.

(27) 대식: 미나는 사과를 좋아하니 포도를 좋아하니?

철수: 미나는 사과를 좋아해.

영호: 아니야, 개는 포도를/*포도 좋아해.

(27)의 발화에서 목적어 자리에 온 ‘사과를’이나 ‘포도를’은 그 둘만으로 이루어진 선택가능한 대치 표현(compatible alternatives)의 집합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호 경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조적 초점(contrastive focus)을 받는다. Ko(2000)의 분석에 의하면 이런 초점을 받는 목적어 명사구는 대격 표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대조적 초점이 없는 다음 예문에서의 목적어 명사구가 대격 표지 없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대비된다.

(28) 엄마 나, 포도/*포도를 먹고 싶어요.

위 예문에서 ‘포도’는 (27)의 예에서와는 달리 화자가 별다른 대치 표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발화함으로써 대조적 초점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대격 표지가 실현될 필요가 없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D. Lee(2002)는 ‘절대적 명세(absolute specification)’란 개념을 사용하여 일본어에서 격조사의 실현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일본어에서 화자가 다른 대상을 지시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 격 표지는 영형(zero form)으로 나올 수 있는 반면, 다른 대상을 비교하거나 염두에 두고 어떤 대상을 지시할 때는 완전한 격 표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⁹⁾ Lee(2002:663)의 다음 예를 보면

(29) A: Kono kuruma- Φ enjin- Φ ii desu ne

this car engine good BE FP

‘As for this car, its engine is good.’

B: *Shatai- Φ doo?

car body how

‘What about the body?’

(29A)에서 화자는 이 차의 다른 부분을 비교하거나 염두에 두고 엔진을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이라는 명사 표현에 영형 격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29B)에서는 이미 ‘엔진’이라는 비교 대상이 담화상에 나와 제시

9) D. Lee(2002)는 (29)와 같은 예문에서 격 표지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대신 영형 격 표지가 사용되었다고 본다. 즉 영형 격 표지는 기저부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서 음성적으로 실체가 있는 격 표지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를 뜻하는 명사 표현에 격 표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즉 (29B) 대신 (30)처럼 답하는 것이 적합하다.

(30) Shatai-wa doo?
car body-TOP how
'What about the body?'

여기서 사용된 D. Lee의 ‘절대적 명세’ 개념은 결과적으로 Ko(2000)나 H. Lee(2006)가 말하는 ‘대조적 초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9A)의 ‘엔진’은 초점을 받지 않는 표현으로서 음성적으로 실체가 있는 격 표지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29B)에서 ‘차체’는 이미 대조적 초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형이 아닌 격 표지가 필요하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 최근 H. Lee(2006)는 실험을 통해 대조적 초점이 대격 조사의 생략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Lee(2006:8)가 로마자로 제시한 예를 다시 인용한 것이다.¹⁰⁾

(31) A: 영미가 밤새도록 자기 엄마를 찾았다고 진수가 그러던데.
B: 아니야. 영미는 너를/너 찾았어.

이 실험에 따르면 (31B)에서 대격 표지가 실현된 ‘너를’이 적합하다고 반응한 피실험자가 71%였는데 반해 대격 표지가 생략된 ‘너’를 선택한 피실험자는 29%였다고 한다. 이는 대조적 초점을 받는 직접목적어 명사구는 대격 표지가 실현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다. 화용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통계적 결과는 격 표지의 실현 유무가 바로 문법적으로 정문과 비문으로 연결되는 엄격한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D. Lee(2002)의 ‘절대적 명세’나 Ko(2000)의 ‘대조적 초점’ 분석은 한국어의 다음과 같은 예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2) A: 하이트랑 카스가 있는데 어느 쪽을 마실래?
B: 카스 마실래. 카스 줘.

위 대화에서 A의 발화를 통해 ‘하이트’와 ‘카스’라는 선택 집합이 설정됨으로써 B의 발화에서 이 선택 집합에 속한 대치 표현 중의 하나인 ‘카스’는 초점

10) H. Lee(2006)에서는 대조적 초점 외에도 유정성(animacy)과 한정성(definiteness)도 대격 표지의 생략에 영향을 주는 가능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예문의 논의에서는 대조적 초점만 다루기로 한다.

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Ko의 이론에 따르면 B는 “카스를 마실래”라고 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Ko의 주장에 의하면 격 표지가 생략된, 그리고 D. Lee(2002)의 주장에 따르면 영형 대격 표지로 나온 목적어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더 나아가 위 예문 (32A)의 답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33) 하이네켄 없어?

이 대답의 ‘하이네켄’은 (29B)의 ‘차체’와 같은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제(topic)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제를 나타내는 격 표지 ‘-은’이 없이도 쓸 수 있다는 점은 D. Lee(2002)의 ‘절대적 명세’ 분석이 일본어에 대해 예측하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¹⁾ 또한 다음 경우는 초점이 직접목적어 명사구인 ‘돈을’에 있지 않고 간접목적어 명사구에 있는 경우인데도 대답할 때 초점을 받지 않는 직접목적어에 대격 표지가 실현될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다.

(34) 엄마: 미나는 돈을 영호한테 주었니 철수한테 주었니?
태식: 영호한테 돈을/돈 주었어요.

따라서 초점을 받으면 대격 표지가 실현되고, 초점을 받지 못하면 생략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대화에서 발화되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는 화맥에 의해 초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엄마가 봉지라면을 집어 들자 미나의 오빠는 그 옆의 컵라면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35) 미나가 컵라면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 컵라면은 비록 그 전에 발화된 적은 없지만 이미 대화의 맥락에서 봉지라면과 대조 집단을 이루어 초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 대격 표지가 생략된 (35)가 대격 표지가 실현된 (36)에 비해 더 자연스럽다.

(36) 미나가 컵라면을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11) D. Lee(2002)는 자신의 ‘절대적 명세’ 개념이 한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밖에도 대격 표지 생략에 대한 초점 분석은 앞 절에서 보았던 특정성 분석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즉 초점 분석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대격 표지가 생략되면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미화원(美靴員)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37) 철수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구두 닦는다.¹²⁾

그렇다면 이상의 분석에서 제기된 대격 표지가 실현된 경우와 생략된 경우의 화용적 차이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4. 대격 표지와 함축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직접목적어 명사구의 대격 표지는 수의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목적어 명사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다음 유형에서 N란 임의의 명사를 말하며, Acc는 대격 표지를, Φ 는 음성적 실체가 없는 영형을 말한다.)¹³⁾

- 가. [*N- Φ] 유형: 대격 표지가 생략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나. [N- Φ] 및 [N-Acc] 유형: 대격 표지가 생략된 것과 실현된 것이 공존
 다. [*N-Acc] 유형: 대격 표지가 떨어져 나간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

주의할 것은 위의 유형 분류는 명사의 의미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즉 같은 명사라도 어떤 경우에는 가-유형으로 쓰일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나- 또는 다-유형으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밥'이라는 명사도 그것이 쓰이는 통사구조적, 의미적, 화용적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질 수 있다.

12) 이 예문에서 기술하는 사건의 비일회성 또는 직업성은 동사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이 예문의 시제를 과거로 바꾸어 "철수는 서울역 지하도에서 구두 닦았다"라고 해도 이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그렇지 않은 일회적 해석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13) D. Lee(2002)에서도 대격 표지의 생략 여부로 일본어 명사구의 유형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 (38) a. 어머니께서 정성스레 싸준 밥을/*밥- Φ 식사 시간이 끝나도록 늦게까지 투덜대며 먹는 아이들
 b. 우리 아이는 밥을/밥- Φ 잘 안 먹어요.
 c. [식사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대해] 밥- Φ /*밥을 안 먹어!

위의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유형은 대격 표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대격 표지가 생략되면 비문이 되거나 의미적으로 비적형문이 된다. 이는 (38)의 예에서처럼 직접목적어가 타동사구로부터 외치되어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경우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매우 격식을 차린(formal) 문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39)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것- Φ 맹세합니다.

통사적인 관점에서 술어의 논항으로 참여하는 모든 명사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격을 부여받는데 한국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격 조사로 실현한다. 이런 형태통사적 현상은 문장의 핵심 단위로서 목적어 명사구가 동사의 논항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Chomsky(1981)는 이를 Case Filter로 설정한 바 있다.

- (40) Case Filter:
 (PRO나 pro를 제외한) 모든 술어의 논항 명사구는 격 표지를 받아야 한다.¹⁴⁾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어에서는 격 조사에 의한 격 표지가 실현되지 않은 (41)과 같은 경우 적절한 운율적 단서가 없다면 중의성이 초래될 수 있다.

(41) 철수 영미 사랑해.

따라서 기본적으로 명사구는 주격이라든지 대격을 나타내는 표지를 실현하는 것이 무표적인(unmakred)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격 표지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생략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 이런 조건에는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한 통사적, 문법적 조건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격 표지 생략의 화용적 조건에 국한하기로 한다. D.

14) 이 Case Filter는 나중에 visibility condition으로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술어의 논항 명사구는 격 표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는 변함이 없다.

Lee(2002), Ahn & Cho(2006), H. Lee(2006)의 연구에 따르면 격 표지의 생략은 대개 문어체보다는 구어체 문장에서 흔하고,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발화자가 참여하는 실제 대화에서 흔하다고 한다.¹⁵⁾ 또한 실제 발화에서도 격식을 차리지 않을 때 또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을 때, 문체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또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표시하려 할 때 격 표지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격 표지 생략은 진리조건에 기반을 둔 의미론적 의미(semantic meaning)에는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수의적(optional)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에서 ‘꽃을’과 ‘꽃-Φ’은 기본적으로 같은 상황을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42a)와 (42b)는 진리조건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 (42) a. 미나는 편의점에서 꽃을 한 송이 샀다.
- b. 미나는 편의점에서 꽃-Φ 한 송이 샀다.

그런데 특정한 동사 V 앞에서 대격 표지 Acc가 생략된 형태, 즉 N-Φ-V를 빈번하게 사용함에 따라 이 형태는 대격 표지가 생략되지 않은 형태, 즉 N-Acc-V와 차츰 체계적으로 구별되기 시작한다. 이런 구별이 관습화(conventionalization)되면 N-Φ-V와 N-Acc-V는 서로 다른 함축적 의미를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 발화에서 ‘코-Φ-베어가는’이 빈번하게 사용되면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지면서 ‘코-를-베어가는’과 구별되는 일종의 단락적 함축(short-circuited implicature)을 유발하게 된다.¹⁶⁾

- (43) 정신 차려. 눈 감으면 코-Φ 베어가는 세상이야.

이는 Morgan(1978)이 지적했듯이 영어에서 *Can you pass me the book?*이라는 용법이 단순히 이유를 물어보는 문장에서 정중한 부탁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사용되어 *Do you have the ability to pass me the book?*과 구별되어 쓰이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Can you pass me the book?*이 ‘Please pass me the book’이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대화상의 함축이기 때문에 적절한 맥락에서는 ‘Can you pass me the book? I just want to know if you can reach it’과 같이 취소가 가능한 것처럼 (43)에서 ‘코-Φ 베어가는’은 정상적인

15) 한 심사위원은 대격 표지가 실현되지 않은 명사구는 동사와 함께 일종의 복합술어로 보는 Ahn & Cho(2006)의 통사적 분석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통사적 분석은 신그라이스 화용론에서의 M-원리와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결코 상충되는 분석이 아니다. 통사적 분석과 화용적 원리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Levinson(2000)을 참조할 것.
 16) 단락적 함축에 대해서는 Bach(1995)와 Morgan(1978)을 참고할 것.

상황에서 보통의 선호되는 해석은 문자 그대로 ‘눈을 감으면 신체의 일부인 코를 절단해가는’은 아니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이라는 비유적인 해석이지만, 이 역시 적절한 맥락에서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축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격 표지의 생략은 원래 대격 표지가 실현되었을 때 갖는 문자적 의미와는 다른 비유적, 관용적 의미를 함축하는데, 이는 관습화 또는 표준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표현은 보다 관습화가 더 일어나서 비유적 의미로는 대격 표지를 생략한 형태만을 사용하지만, 어떤 다른 표현은 관습화가 비교적 덜 진행되어서 아직도 대격이 실현된 형태와 대격이 생략된 형태가 혼용되기도 한다.¹⁷⁾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 <표 1>과 같다.

N-Acc-V	N-Φ-V	관습화의 정도
손을 보다	손 보다 (웅정하다)	↑ 강함 ↓ 약함
큰 코를 다치다	큰 코 다치다 (낭패를 당하다)	
코를 베어가다	코 베어가다 (피해를 입다)	
배를 타다	배 타다 (선원이 되다)	
뺨을 치다	뺨 치다 (필적하다)	
구두를 닦다	구두 닦다 (직업으로서)	
노래를 부르다	노래 부르다 (반복, 습관)	

<표 1> N-Acc-V 형태와 N-Φ-V 형태

위에 제시된 표현들 중에서 ‘뺨을 치다/뺨 치다’의 경우를 예로 보자.

- (44) 너희 아버지는 대학교 다닐 때 영화배우 신성일 뺨 쳤다.

대격 표지가 생략된 ‘뺨치다’가 쓰인 예문 (44)는 엄밀히 말해 문자적 의미(L-해석)과 비유적 의미(M-해석) 사이에서 중의적이다.

17) 예를 들어 같은 ‘뺨’과 관련된 속담이라도 (1)에서는 대격 표지가 생략된 형태가 널리 쓰이는 반면 (2)에서는 대격 표지가 실현된 형태도 쓰이는데 이는 비유적 의미의 관습화 정도에서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1)에서는 이미 ‘뺨’은 신체의 일부로서 의미는 거의 사라진 반면, (2)는 여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1) 뺨 잘 때리기는 나막신 신은 각쟁이라.
 (2) 뺨을 맞더라도 온가락지 낀 손에 맞는 것이 좋다.

- (45) L-해석: 너희 아버지는 영화배우 신성일의 뺨을 세계 건드렸다.
M-해석: 너희 아버지는 영화배우 신성일 못지않게 잘 생겼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이 대격 표지와 소유격 표지가 모두 실현된 경우는 비유적 의미(M-해석)은 없고 대신 문자적 의미(L-해석)만 가능하다.

- (46) 너희 아버지는 대학교 다닐 때 영화배우 신성일의 뺨을 쳤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화될 경우 (46)에서는 (45)의 L-해석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4)와 (46)에서 보듯 ‘뺨을 치다’와 ‘뺨 치다’는 현재 공존하고 있지만 서로 화용적 기능은 다르게 상호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44)는 적절한 맥락이 추가되면 함축적 의미는 사라질 수 있다.

- (47) 너희 아버지는 대학교 다닐 때 영화배우 신성일 뺨 쳤다가 옆에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격 표지가 생략된 형태의 함축 의미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우리는 앞서 한국어의 대격 표지 ‘-을/를’은 직접목적어 명사구를 표시하는 무표적인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대격 표지가 생략된 유형은 ‘-을/를’에 비해 유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기술하는 데 있어 선택 가능한 무표적 표현과 유표적 표현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무표적 표현을 사용하면 이는 그 대상이나 사건이 우리가 늘 접하고 알고 있는 세계의 방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유표적 표현의 사용은 보통의 기본 값(default value)과는 다르거나 추가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화용적 추론의 과정을 Levinson(2000:136-137)은 다음과 같은 M-principle로 설정한다.

- (48) 비전형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은 이에 상응하는 전형적이거나 일반적인 상황을 기술할 때 사용할 표현과 대조를 이루는 유표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하라.

이 원리에 의하면 유표적인 형태는 보다 일반적인 무표적인 형태에 비해 어휘화가 덜 되었거나 형태구문적으로 특수한 것으로서 이런 것들은 화용적으로 추가적인 함축 의미를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M-원리가 적용되는 예를 보면 다음 예문 (49)에서 *made the car move*는 *move the car*에 비해 유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는 *Sue moved the car*라는 문장이 함축하지 못하는

M-함축을 유발한다.¹⁸⁾

- (49) Sue made the car move.
+> ‘Sue moved the car in some nonstereotypical way, e.g. by pushing it.’ (예문은 Levinson(2000, 141)에서 인용한 것)

반면에 보다 무표적인 표현인 “Sue moved the car”는 Levinson의 I-원리에 의해 적극적인 의미 보충이 일어나 ‘Sue moved the car by driving it, by using the engine’이라는 함축을 갖는다. 즉 최소한 의미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move the car*와 *make the car move*는 말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종류의 함축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 예문에서 볼 때,

- (50) She went to church/school/university/bed/hospital/sea/town.
+> ‘She went to do the associated stereotypical activity.’
(51) She went to the church/school/university/bed/hospital/sea/town.
+> ‘She went to the place but not necessarily to do the associated stereotypical activity.’ (예문은 Levinson(2000, 147)에서 인용한 것)

영어에서 *church*라든지 *school* 등의 일부 한정된 장소나 공간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 *go*와 결합할 때 그것이 단순한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나 공간의 원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이동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관사 없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보다 무표적인 형태가 사용된 (50)에서는 일반적인 해석이 우세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유표적인 형태가 사용된 (51)에서는 특수한 의미의 M-함축이 유발된다. 이는 그 상황에서 쓰일 수도 있었던 무표적 형태 대신 유표적 형태가 쓰임으로써 야기된 화용적 함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한국어 대격 표지 생략에서의 화용적 의미의 차이도 M-원리로써 설명할 수 있다. 앞 장에서 본 Case Filter의 내용처럼 일단은 향으로 사용된 명사구는 형태상으로 격 표지를 부여받는 것, 즉 ‘N-Acc’형이 가장 기대되는 무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음 예문에서 보듯 별다른 맥락의 특수한 뒷받침이 없는 경우 (52a)에서처럼 대격 표지를 수반하는 것이 무표적인 것으로 보고, 대격 표지가 생략된 (52b)는 완전히 비문은 아닐지라도 (52a)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표적인 것이다.

18) 예문에서 A +> ‘B’란 기호는 ‘A라는 문장의 발화는 B라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뜻임.

- (52) a. 이 버스는 정거장을 계속 지나쳤다.
- b. ?이 버스는 정거장 계속 지나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표적인 'N-Acc'형이 전형적이거나 일반적인 사건, 상황을 기술하는 데 비해, 유표적인 'N-Φ'형은 앞에서 보았던 비유적 의미라든지, 또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배려, 비격식적 관계의 강조와 같은 화용적 함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은 선호되는 해석에서 차이가 있다.

- (53) a. 철수는 맥주를 마시니?
- b. 철수는 맥주 마시니?

(53a)는 철수가 발화 시점 현재 화자가 인지하거나 화자의 담화 표상에 존재하는 특정한 맥주를 마시는지를 묻는 일반적인 뜻이 선호되는 반면, (53b)는 직접목적어 명사구에 대격 표지가 생략된 유표적인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기술하기 보다는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인 의미로 선호된다. 이런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표적 표현이 갖는 의미론적 의미가 아닌 M-원리에서 파생된 화용적 함축임을 알 수 있다.

- (54) 철수 맥주 마시니? 생전 마시지 않던 애가 오늘따라 웬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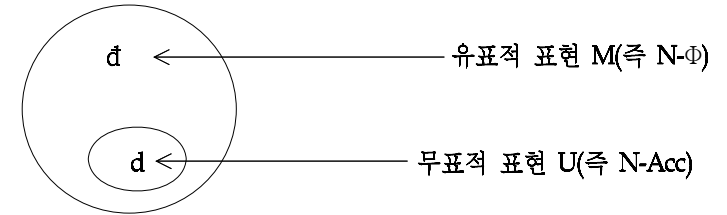
또한 앞 장에서도 잠시 언급한 다음 예문을 비교해 보면

- (55) a. 영호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구두를 닦았다.
- b. 영호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구두 닦았다.

(55a)에 비해 (55b)는 목적어 명사 표현에 대격 표지가 실현되지 않은 유표적 표현으로서 단순한 일회적 사건의 기술이 아닌, 직업으로서 반복적 행위를 함축한다. 즉 (55a)에서 영호는 직업적 구두닦이가 아닌 가능성이 높은 반면, (55b)에서 영호는 직업적 구두닦이의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함축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영호는 회사 출장을 가던 중 서울역 대합실에서 구두 닦았다'라는 식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본 것을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같은 지시의(denotation) D를 갖는 무표적 표현 U와 유표적 표현 M이 있을 때 화자가 무표적 표현 U를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표적 표현 M을 사용하여 발화하면 이는 D의 부분집합

으로서 일반적인 해석 영역의 집합 d의 여집합인 \bar{d} 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¹⁹⁾



<그림 1> 무표적 해석과 유표적 해석

<그림 1>에서 유표적 표현 N-Φ의 사용은 무표적 표현 N-Acc의 사용에서 볼 수 없는 화용적 의미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앞에서 본 비유적 의미이고, 또 다른 화용적 의미는 예문 (53), (55)에서 보았던 직업이라든가 습관 등의 확장된 사건 해석이다. 이밖에도 \bar{d} 에 속할 수 있는 화용적 의미는 비격식성에 따른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일례로 Fujiwara(1992)는 격조사를 삭제함으로써 화자는 청자와의 거리를 좁히게 되어 사적인 관계(involverment)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D. Lee (2002)는 일본어의 격 표지가 갖는 화용적 기능으로서,

- (56) A: Nani shite ta no?
 what were.doing QM
 'What were you doing?'
- B: A, watashi heya de hon Φ yonde ta.
 oh, I room in book was reading
 'Oh, I was reading a book in the room.'

(56B)는 (56A)와 같은 질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장이지만 일단 대화 상대방이 (56A)와 같이 물었거나 그런 물음이 전제된 상황이라면 그 사람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직접목적어 hon 'book'을 대격 표지 없이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이를 D. Lee(2002:669)는 '보상적

19) 한 심사위원은 <그림 1>에서 무표적인 의미는 의미론적인 의미과, 유표적인 의미는 화용론적인 함축과 동일시되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이 둘은 영어의 stop이나 cause to stop의 경우에서 처럼 U나 M표현이 가질 수 있는 의미로서 이들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화용적 함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강화(compensatory reinforcement)라고 부르는데, 먼대면 대화에서 화자는 격 표지를 생략함으로써 비록 술어와의 논리적 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위험성을 초래하지만 대신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대화의 분위기(mood)를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상적 강화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서 비롯되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다음 예문 (57)에서 화자는 주제격이나 대격, 처소격 표지를 생략함으로써 청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57) a. 나- Φ 밥- Φ 안 먹어.
 b. 학교- Φ 안 가.
 c. 나- Φ 감동- Φ 받았어.
 d. 미나- Φ 아직도 철수씨- Φ 사랑하고 있어.

이 역시 격 표지가 정확히 실현된 형태에 비해 유표적인 표현들로서 화자는 청자와 자신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거리감이 덜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함축하게 된다. 따라서 격 표지가 생략된 이런 발화들은 문장의 명제 내용 자체에 화용적인 의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구성하는 대화참여자 사이의 분위기나 상호 관계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게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화용적 함축(pragmatic implicature)이라기 보다는 상위화용적 함축(metapragmatic implicature)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⁰⁾ 또한 다음 (58)에 반복한 앞에서 보았던 예문 (39)의 경우처럼 격 표지의 생략은 발화의 격식과도 연결되는데, (59)는 격 표지가 생략되어 지나치게 비격식체의 발화로 전락하기 때문에 보통 이 문장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는 발화의 분위기와 맞지 않아 화용적으로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58)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59) ??나- Φ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충성- Φ 다할 것- Φ 맹세합니다.

위 예문 (58)과 (59)의 차이는 그 발화 자체가 유발하는 메시지의 차이에 있지 않고 대신 그 발화를 하는 화자가 청자나 발화의 상황에 대해 갖는 태도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상위화용적 함축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격 표지의 생략은 비유적 의미라든지, 행위의 반복성 또는 습관성, 대화 참여자나 맥락에 대한 태도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화용적, 상위화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화용적 함축과 구별되는 상위화용적 함축에 대해서는 S. Lee(in prep.)을 참고할 것.

5. 맺기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한국어의 직접목적어 명사구의 대격 표지 생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대격 표지 생략이 단순히 수의적이고 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교한 추론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표시하는 역동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특정성이나 초점에 근거한 의미론적 분석은 대격 표지 생략의 부분적인 측면을 밝힐 수는 있어도 대격 표지와 관련된 다양한 화용적 함축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Levinson(2000)이 제시한 신그라이스적 화용론의 대화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다.

신그라이스적 화용론에서는 유표적인 것과 무표적인 것이 선택 가능한 표현 쌍으로 존재할 때 화자가 무표적인 것을 선택한 것은 보다 일반적인 상황을 기술하는 반면, 유표적인 표현을 선택한 것은 보다 특수하거나 추가적인 의미 내용을 기술하려는 일반화된 함축이 있다고 본다. 대격 표지가 생략된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격 표지가 실현된 형태에 비해 유표적인 표현으로서 M-원리에 의해 상대적으로 유표적인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는 보다 무표적인 대격 표지 실현형과 화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전영철. 2005. 한국어의 소위 특정성 표지들에 대하여. 언어 30, 715-743.
 Ahn, Hee-Don., and Sungeun Cho. 2006. Layered nominal structures: Implications for caseless nominal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1, 165-185.
 Aissen, Judith. 2003. Differential object marking: Iconicity vs. econom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1, 435-483.
 Bach, Kent. 1995. Standardization and conventionaliz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18, 677-686.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Enç, Mürvet. 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18, 633-657.
 ————. 2004.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Semantics: critical concepts in linguistics. ed. by Javier Gutierrez-Rexach. vol. 3, 184-211. London: Routledge.
 Fodor, Jerry, D., and Ivan Sag. 1982. Referential and quantificational indefinit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355-398.
 Fujiwara, Manasori. 1992. An analysis of particle omi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agmatics. Nihongo Rnkyuu, Vol. 3, ed. by I. Tajima and Y. Niwa. 129-148. Izumi Shoin.
 Kim, Dae-Bin. 1993. The specificity/non-specificity distinction and scrambling theory. Seoul: Thaeaksa.

- Ko, Eon-Suk. 2000. A discourse analysis of the realization of objects in Korean. *Japanese/Korean Linguistics* 9, 195-208. Stanford: CSLI Publications.
- Lee, Duck-Young. 2002. The function of the zero particle with special reference to spoken Japanese. *Journal of Pragmatics* 34, 645-682.
- Lee, Hanjung. 2003. Parallel optimization in case systems. *Nominals: inside and out*, ed. by Miriam Butt and Tracy Holloway King, 15-58. Stanford: CSLI Publications.
- _____. 2006. Iconicity and variation in the choice of object forms. 한국담화인지언어학회 2006년 10월 연구회 발표 논문.
- Lee, Hyo-Sang, and Sandra A. Thompson. 1985. A discourse account of the Korean accusative marker. *Studies in Language* 13.1, 105-128.
- Lee, Sungbom. In prep. *Metapragmatic implicatures: Theory and application*.
- Levinson, Stephen C. 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Masunaga, Kiyoko. 1988. Case deletion and discourse context. *Papers from International Workshop on Japanese Syntax*, ed. by William Poser, 145-156. Stanford: CSLI Publications.
- Morgan, Jerry. 1978. Two types of convention in indirect speech acts. *Syntax and semantics*. Vol. 9, ed. by Peter Cole, 261-280. New York: Academic Press.

이성범
 서강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120-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전화번호:+82-2-705-8294
 Fax: +82-2-715-0705
 E-mail: sblee@sogang.ac.kr

이 논문은 2006년 11월 10일 투고 완료되어
 2006년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6년 12월 9일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것임.